■ 민족문화연구 제82호(2019.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93-426.
http://doi.org/10.17948/kcs.2019..82.393

탈북민 화법 연구에 나타나는 언어 이데올로기 연구*

양수경(梁秀京),** 이주랑(李주랑)***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설계
3. 탈북민 화법 연구에 나타난 기호 과정
4. 기호 과정을 통해 본 탈북민 언어 이데올로기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탈북민 화법 연구 분야에 언어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성격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탈북민 화법 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이 나타나는지와 그 양상은 어떠한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분석 대상 논문의 80%에서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탈북민 화법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탈북민 화법과 남한 토

* 이 연구는 2018년 ㈜천재교육의 과제 지원으로 수행한 '탈북민 언어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인식 비교 연구'의 연구 보고서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유익한 심사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 언어학과 강사(제1저자).
***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공동 연구자).

박이 화법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탈북민 화법 대 남한 토박이 화법의 대립 구도는 또다시 남북한 언어의 대립 구도로 재생산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탈북민 화법 연구에 있어 '이질성 이데올로기'가 존재했다고 보고, 이를 '탈북민들의 화용 특성이 남한 토박이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신념 체계'로 정의하였다. 이질성 이데올로기의 존재는 앞선 연구들이 동질성보다 이질성에 더욱 집중해온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 연구의 방법론과 용어 선정 경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공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선행 연구의 기저에 존재하는 이질성 위주의 인식 틀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언어 이데올로기,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화행, 화법, 언어 인식.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탈북민 화법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특정 언어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그 언어 이데올로기의 성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언어 이데올로기는 언어 인식에 이해관계나 정치성이 포함된 신념 체계가 관여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개념으로, 언어 연구 기저의 담론을 가시화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또한 언어 이데올로기는 객관적인 언어 사실의 차원과는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언어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인 동시에 실제로 언어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 본고는 탈북민 화법 연구사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선행 연구에 '탈북민 언어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존재한다면 그 성격은 무엇인지 밝힌 뒤, 그것이 탈북민 화법 연구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언어 이데올로기의 개념 및 언어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호 과정을 살펴본 후, 이를 분석틀로 삼는 전체적인 논의의 방법을 서술한다. 3장에서는 탈북민 화법에 관한 기존 논문들을 시간 순서대로 검토하면서, 해당 연구에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이 드러나는지와 그 구체적인 양상은 어떠한지 정리한다. 4장에서는 이제까지의 검토를 토대로 연구사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기호 과정을 정리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탈북민 언어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정의한다. 또한 기존 연구의 용어 사용 양상이나 연구 방법의 경향이 언어 이데올로기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되짚어 본다. 그리고 탈북민 언어 이데올로기가 성립하도록 하는 핵심 기제인 '선택적 지표화'를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또 다른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으로 상정될 가능성을 타진한다. 5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설계

1) 이론적 배경

(1) 언어 이데올로기의 정의

'언어 이데올로기(language ideology)'는 20세기 후반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언어를 분석하고자 했던 일군의 언어인류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관련 학자들의 관점이 상이하여 아직까지 모두가 동의하는 언어 이데올로기의 보편적 정의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고에서는 연구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실버스타인(Silverstein)과 어빈(Irvine)의 것을 참고하여 언어 이데올로기를 재정의하였다.

실버스타인(Silverstein)은 '언어 이데올로기'를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와 그 사용에 대한 인식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언어에 대한 신념들의 집합(sets of beliefs about language articulated by users as a rationalization or justification of perceived language and use)"이라고 보았다.[1] 이는 언어 이데올로기란 특정한 언어가 어떠하다고 인식하게 될 때 이를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갖는 신념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신념 체계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언어 인식을 합리화 또는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

1) Silverstein, Michael, "Language structure and linguistic ideology", R. Clyne, W. Hanks and C. Hofbauer (Eds.), *The elements: A parasession on linguistic units and levels*,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9, p.193.

어빈(Irvine)의 언어 이데올로기는 “언어 사용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언어적 관계에 대해 갖는 관념들, 그 관념들이 담고 있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문화적 체계(the cultural system of ideas about social and linguistic relationships, together with their loading of moral and political interests)”이다.[2]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언어들의 차이를 파악해 언어들을 구별할 때, 언어들 간의 관계와 사회집단 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어떤 관념 체계를 따른다. 이때 관념 체계는 각 사회집단의 경험과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본질상 편파성을 내포한다.[3]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언어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이 언어[4]를 구별하고 그 특성을 부여할 때 의식,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언어에 대한 신념 체계’로 정의한다. 이때 신념 체계는 언어 간의 관계와 사회집단 간의 관계를 일정한 방식으로 대응시킬 때 작용하며, 언어 사실의 차원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 언어 이데올로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언어 이데올로기는 존재하는 언어 상황을 해석하는 눈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언어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5]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이데올로기는 사용자의 언어 변화를 유도하기도 하며, 언어학자나 인류학자들의 언어 이데올로기 또한 의식·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언어 기술과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때로 학자들의 언어 기술은 사회언어학적 지형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언어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언어 인식의 영역에도 이해관계나 정치성이 포함된 신념 체계가 개입되어 있다는

2) Irvine, Judith T., “When talk isn’t cheap: Language and political economy”, *American ethnologist*, Vol.XVI, No.2, 1989, p.255.

3) Irvine, Judith T., “Language Ideology”, Oxford Bibliographies Online, http://www.oxfordbibliographies.com/view/document/obo-9780199766567/obo-9780199766567-0012.xml(2018.12.31 검색).

4) 여기서 ‘언어’는 개별 언어(a language)와 함께 지역 변이어, 사회 변이어, 국가 변이어 등의 언어 변이어(language variety)를 가리킬 수 있다.

5) Irvine, Judith T. and Gal, Susan, “Language ideology and linguistic differentiation”, Paul V. Kroskrity (Eds.), *Regimes of language: Ideologies, polities, and identities*, Santa Fe, NM: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2000, p.36.

사실을 일깨워주는 개념으로서 언어 연구 기저의 기존 담론을 가시화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 만약 지금까지의 탈북민 화법 연구에 있어서 탈북민 언어에 대한 특정한 신념 체계가 당연한 전제로서 존재해 왔다면 연구 지형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탈북민 언어 및 탈북민에 대한 어떤 정형(stereotype)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연구의 기저에 언어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지 밝히는 본고의 작업은 혹시라도 편향된 인식의 틀 안에서 탈북민 언어를 바라보지 않았는지 연구사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언어 이데올로기와 언어 연구가 상호작용하면서 어떠한 정형들을 생산하며 또 강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2)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

어빈과 갈(Irvine and Gal)[6]은 사람들이 언어 차이에 대해 언어 현실 자체에 기반하지 않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일련의 기호학적 과정(semiotic process)을 거친다고 주장하였다. 언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는 기호학적 과정이 바로 '도상화(Iconization)',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Fractal recursivity)', '삭제(Erasure)'이다.[7]

이러한 세 가지 기호 과정은 사람들이 언어와 사회집단의 연결에 대해 상상하는 방식과 연관되는데, 특정한 신념 곧 언어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도록 언어들의 표상을 만들어 내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어빈과 갈(Irvine and Gal)[8]은 아프리카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민족지와 언어학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사람들이 언어를 구별하고 그 차이에 대해 얘기할 때 나타나는 유사한 표상 방식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위의 세 가지로 유형화한

6) Ibid., pp.36-39.
7) 어빈과 갈(Irvine and Gal)의 세 기호 과정에 대해 강윤희, 「주변화에 따른 전통구술장르의 변화와 언어이데올로기: 인도네시아 쁘딸랑안 부족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제32호 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2004에서는 Iconization을 '아이콘화'로, Fractal recursivity를 '상이한 차원에서의 순환성', Erasure를 '삭제'로 번역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개념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Iconization을 '도상화'로, Fractal recursivity를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8) Irvine, Judith T. and Gal, Susan, Op. cit., pp.36-39.

것이다. 각각의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상화(Iconization)"는 특정 사회 집단의 언어적 특징이 그 집단 자체를 대변하게 하는 것으로, 언어적 특징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집단의 근원적이고 선천적인 자질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언어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질들을 서로 묶어 특정 집단의 유전적 특징으로 만들어 버린다.[9]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Fractal recursivity)"은 한 층위에서의 핵심적인 대립 관계가 다른 층위로 투사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단 내 대립은 집단 간 대립으로(상위 층위로) 투사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집단 간 대립은 집단 내 대립으로(하위 층위로) 투사 가능하다. 대립으로 인한 분할은 다른 층위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대립되는 외부의 상위집단이 생겨나거나 대립되는 두 하위집단이 나타난다. 이렇게 한 층위에서 다른 층위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대립 관계는 그에 따른 새로운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낸다.[10]

"삭제(Erasure)"는 특정한 사람이나 행동, 사회언어학적 현상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으로, 이데올로기적 구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숨기고 설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인류학에서 '타자'를 동질적 집단으로 상정하기 위해 그에 맞지 않는 성질이나 특성들을 삭제해 온 것과 마찬가지이다. 언어적 행위 역시 삭제를 거쳐 이데올로기에 맞게 단순화된다.[11]

본고는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기호 과정을 주된 분석 도구로 삼아 그동안의 탈북민 화법 연구들에서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언어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12] 기호 과정

9) Ibid., p.38.
10) Ibid., p.38.
11) Ibid., p.38-39.
12) 한 심사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 기호 과정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탈북민 언어 특성이 북한 언어 특성으로 투사되는 과정에서는, 탈북민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남한 토박이 언어와 동질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게 된다. 언어의 여러 특성 중 어떤 부분이 특별히 강조되면서 다른 부분이 조명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은 '삭제'라는 기호 과정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나타나고 반복된다면 언어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호 과정 검토를 통해 언어 이데올로기의 존재를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설계

본고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탈북민 화법 연구[13]를 시간 순서대로 검토하며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이 나타나는지 살피는 것을 기본적인 연구 방법으로 삼는다. 개별 연구의 검토에 있어서는 연구를 크게 연구 설계 단계(가설 설정, 연구 방법)와 결과 기술 단계(결과 제시, 결과 해석)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서 '도상화',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 '삭제'의 기호 과정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검토 대상으로 총 10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해당 연구가 탈북민의 화법을 다루고 있느냐로 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편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수집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문 목록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문헌 목록

제 목
문금현,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2007.
전정미ⓐ, 새터민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화행 교육 방안 연구: 거절하는 말하기를 중심으로, 2010.
전정미ⓑ, 북한이탈주민의 화행 사용 양상 연구—칭찬 화행을 중심으로—, 2010.
전정미ⓒ, 북한이탈주민의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조사, 2010.
이수연, 새터민과 남한인의 요청 화행 연구, 2012.
이주랑, 북한이탈주민의 요청 화행 수행 양상에 대한 연구, 2016.
제은주,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거절 화행 실현 양상 비교 연구, 2016.
구현정, 남북한 감사 화행 비교 연구, 2017.

13) 여기서의 '화법 연구'는 언어를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화용 능력(pragmatic competence)'에 관한 연구를 말한다. 화자의 특정한 의도를 가지며 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의 발화를 의미하는 '화행(speech act)' 연구를 포함한다.

전정미ⓓ, 남북한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연구, 2017.
양수경, 남북한 거절 화행 비교 연구, 2017.

분석 대상 연구의 순서는 선행 연구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논문 발표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언어 사용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본고에서는 '탈북민'과 '남한 토박이'를 사용하나, 개별 연구 검토 과정에서는 해당 선행 연구의 용어는 그대로 살려 썼다.

검토 결과 선행 연구에서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언어 이데올로기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어떤 언어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뒤, 새로이 발견한 언어 이데올로기의 존재를 통해 설명되는 기존 연구의 경향성과 특징들이 있는지, 그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즉, 탈북민 언어 이데올로기의 존재 가능성을 타진하고, 언어 이데올로기와 화법 연구의 상호 작용을 조명할 예정이다.

3. 탈북민 화법 연구에 나타난 기호 과정

문금현의 2007년 연구[14]는 탈북민들이 어려워하는 남한의 어휘와 화용표현을 조사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이전까지는 탈북민 언어적응 연구에서 주로 외래어나 한자어, 발음과 억양 등이 주 문제로 언급되어 왔으나 이 연구에서 언어 예절, 화행에서도 적응의 문제가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언어학 분야의 탈북민 화법 연구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 교육 자료 개발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설계 단계에서 이미 '탈북민들이 남한의 화용 표현을 잘 모르거나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설을 전제로 '이질성 찾아내기'를 연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연구 방법에도 반영되었다. 이 연구는 10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담화완성설문과 주관식 설문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담

14) 문금현, 「국어교육: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제7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141-172면.

화완성설문으로는 인사, 요청 및 거절, 사과, 감사, 칭찬 표현과 응대 표현을 조사하였으며, 주관식 설문에서는 각 화행을 사용하거나 화행에 응대할 때 어색했거나 당황했던 경험을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설문에 드러난 탈북민의 부적응 사례들을 중심으로 자유 문항을 만들어 조사하였다. 이 때 조사 방법에 화행 부적응 경험을 수집하는 주관식 설문과 심층면접을 추가한 점은 탈북민의 화법 부적응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결과 기술 단계에서 연구자는 인사, 감사, 칭찬, 사과, 거절의 5가지 유형의 화용 표현에 대해 "새터민이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대체적으로 인식을 잘 하고 있는데 다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기술하였다.[15] 또한 부적응을 경험하는 탈북민의 화용 특성으로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여 거절하기보다 직접적으로 거절한다', '관계에 따라 거절 방식이 달라짐을 인식하지 못한다', '사과의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 '감사에 대한 표현력이 부족하다', '칭찬받고 칭찬하는 것을 어색해한다'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제시는 탈북민 집단의 전반적인 화행 양상을 균형있게 보여주기보다 부적응 사례들과 그 유형에 초점 맞추고 있다. 실제로 논문에서는 "40대와 50대의 경우가 20대와 30대에 비해 거의 2배 이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밝힘으로써 부적응이 특정 세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16] 또한 이 논문의 기초가 되는 연구보고서[17]를 보면 "담화 설문 결과에서 새터민들에게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담화 상황에 맞는 화용 표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하나원에 기숙하고 있는 8명의 새터민을 대상으로 재확인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한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여 담화완성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음을 분

15) 같은 글, 146면.
16) 같은 글, 148면.
17) 문금현・이홍식・김경령,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2006.

명히 밝히고 있다.[18]

그렇다면 논문에 보고된 탈북민의 화용적 특성은 부적응 사례를 중점적으로 수집한 주관식 설문과 심층면접, 그리고 주로 40대와 50대에 집중된 담화완성설문의 응답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즉 논문의 연구 초점인 탈북민의 화용 교육 내용을 추출해 내기 위해 부적응 사례에 집중하다보니 탈북민 집단 내 남한식 화용 표현을 알고 충분히 잘 구사하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부적응에 초점 맞추는 결과 제시에는, 탈북민의 집단 내 다양성에는 덜 주목하면서 탈북민을 남한 토박이와 대립되는 집단으로 표상하는 '삭제'의 기호 과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 해석 부분에서는 또 다른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인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이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연구자는 탈북민의 언어 적응이 남북한의 체제의 차이에 따른 언어 차이, 문화의 차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화용 표현은 문화적인 차이가 언어에 반영되는 실태이며, 남한에서는 칭찬, 감사, 사과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이나 새터민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에 비해 언어적으로 상대를 더 배려하는 문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기술이 보여주듯이, 위 연구는 탈북민 화용 표현의 주요 특성은 북한 사회 문화의 반영이므로 탈북민의 화용 특성을 통해 북한의 언어 문화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9] 이는 화용적 특성 면에서의 탈북민과 남한 토박이들의 대립을 북한 사회와 남한 사회의 언어 문화적 대립으로 투사하는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 출간된 전정미의 세 편의 연구[20]는 100여 명의 탈북민을 대상으

18) 같은 글, 7면.
19) 문금현, 앞의 글, 146면.
20) 전정미, 「새터민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화행 교육 방안 연구: 거절하는 말하기를 중심으로」, 『우리말 글』 제49호, 우리말글학회, 2010a; 「북한이탈주민의 화행 사용 양상 연구—칭찬 화행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제27호, 한말연구학회, 2010b; 「북한이탈주민의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조사」, 『겨레어문학』 제45호, 겨레어문학회, 2010c.

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화행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공통성을 가지며, 탈북민의 거절 화행, 칭찬 화행, 사과 화행에 대해 조사한 연구이다.

전정미ⓐ[21]는 탈북민의 말하기에 대한 기본적 의식과 거절 화행 사용 실태를 다루었다. 연구 제목이 "화행 교육 방안 연구"라는 점에서라든지, "그들의 국어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는 기술에서 앞서 살펴본 문금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질성 찾아내기'를 의도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22] 이 연구 또한 설계 단계에서 탈북민의 화행이 이미 교육이 필요한 상태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남한 토박이와는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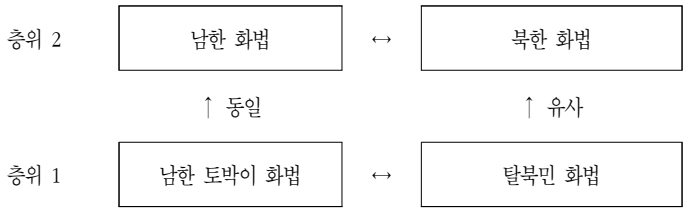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실제로 탈북민 1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 조사의 문항에서 '남한 화행은 (북한과는 달리) 간접적'이라는 전제가 드러난다. 설문 문항은 남한의 표준어 교육에 관한 내용, 화행 수행에서의 어려움, 거절 화행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에둘러 말하는 남한의 간접적인 거절 표현을 알고 있습니까?", "에둘러 말하는 남한의 간접적인 거절 표현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남한의 간접적인 거절 표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남한의 간접적인 거절 표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접적인 거절 표현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배우겠습니까?"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3] 이는 설문지가 '(북한과는 달리) 남한에서는 간접적으로 거절한다'라는 전제 위에 작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부 문항에서는 '탈북민(응답자 자신) 화행'이 아닌 '북한의 화행'을 묻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사용하는 거절 표현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남한과 북한의 거절 표현이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남한의 거절 표현이 북한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표현이 다른지 적어주십시오."와 같이 '북한 화행'을 수집하는 문항이 존재한다.

---

21) 전정미, 앞의 글, 2010a, 111-138면.
22) 문금현, 앞의 글, 3면.
23) 전정미, 앞의 글, 2010a, 136면.

이와 같은 연구 설계는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 중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을 드러낸다. 탈북민 화행과 남한 토박이 화행이 보이는 차이를 '북한 화행 대 남한 화행'으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전정미ⓐ[24]에서 드러나는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

물론 탈북민의 화행이 북한 화행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므로, 그것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모방언인 북한 화행 양상을 조사해볼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탈북민 언어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요인 중 북한 화행 이외의 다른 요인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 1〉과 같은 구도가 생성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즉 탈북민의 대다수가 남한 입국 전에 거치게 되는 중국 화법의 영향이라든가, 해외 체류하면서 겪었을 다른 언어의 영향, 하나원에서 받고 있는 언어 교육의 효과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서 '북한'이라는 요인이 '탈북민의 화법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요인인 것처럼 읽히게 되고, 그 결과 '남한 토박이 대 탈북민'이라는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이것이 또다시 '남한 대 북한'이라는 층위로 투사되는 것이다.

이 기호 과정은 결과 기술 단계와도 연결된다. 물론 결과 제시의 대부분은 탈북민 화행에 대한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지에 '남북한 화행'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자연스레 '남북한 화법의 차이'에 대한 기술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행을 사용하는 양상이 남북

24) 같은 글.

한 화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문 결과는, "화행이라는 것이 그 언어 사회가 가진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화가 다른 새터민의 입장에서는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며, 탈북민의 화행 특수성을 남북한 화행 차이로 재생산하게 된다.[25] 즉 결과 기술 단계에서도 〈그림 1〉과 같은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이 나타나는 것이다.

전정미ⓑ[26]는 탈북민의 "한국어에 관한 기본적인 의식과 칭찬 화행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27] 연구자는 이 연구가 탈북민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본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선행 작업이며, 연구 결과를 "북한이탈주민의 국어 교육, 그중에서도 말하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어, 역시 탈북민의 화법이 이질적인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28]

연구 방법은 설문 조사로,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민 9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하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정착 기간이 짧은 사람들"로 "아직까지 북한에서 사용하던 언어 습관이 현저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29] 그러나 탈북민이 북한에서 살다가, 제3국에 살다가,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에서의 언어 습관뿐만 아니라 탈북 과정에서 경유한 국가들에서 새로 습득하고 변화한 언어 습관, 하나원에서 교육을 통해 익힌 언어 습관, 하나원 이후 남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습관 모두가 '탈북민 언어'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연구는 탈북민에게서 북한에서 사용하던 언어와 가장 유사한 자료를 수집하려 한다는 것은, 위 연구에서는 '북한의 언어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가장 전형적인 탈북민 언어'라고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그림 1〉의 구도를 발견할 수 있다. 남한 토박이 언어와 탈북민 언어의 관계를 남한 언어와 북한 언어의 관

25) 같은 글, 121면.
26) 전정미, 앞의 글, 2010b, 245-272면.
27) 같은 글, 247면.
28) 같은 글, 252면.
29) 같은 글, 250면.

계로 투사하는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이라는 기호 과정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설문에 사용된 일부 문항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사용하는 칭찬 표현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남한과 북한의 칭찬 표현이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남한 사람이 칭찬할 때 사용하는 말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다른지 적어주십시오."와 같이 '남북한 화행 비교'를 의도하는 문항이 존재하는 것이다.[30] 이러한 질문이 포함된 것은 이 연구가 '탈북민 칭찬 화행의 특성'이 '남북한 칭찬 화법의 차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실제로 결과 기술 부분에서도 남북한 화법의 차이점이 상당한 비중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정미ⓒ[31]는 탈북민의 한국어 의식과 사과 화행 활용 양상을 다루었다. 연구 방법은 설문 조사로, 탈북민 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설문 대상 전원이 조사 시점 당시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조사 대상 선정 이유를 "북한에서 사용하던 언어 습관히 현저하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32] 연구의 목적이 '북한 화법' 조사가 아닌 '탈북민 화법' 조사임에도 '북한 언어 습관'이 많이 남아있는 응답자가 보다 적절한 응답자로 간주된 셈이다. 이는 이 연구 역시 앞서 살펴본 전정미ⓑ[33]와 같이 원형적인 탈북민 언어란 곧 가장 북한의 언어 습관이 잘 보존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문지 문항 중간중간 남북한 언어 차이를 질문하고 있다는 점도 전정미ⓑ[34]와 공통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 역시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호 과정은 결과 기술 단계에서도 드러난다. 연구자는 결과 제시의 상당한 분량을 '남북한 화법의 차이'를 조명하는 데 할애하는데, 일례로 남북한

30) 같은 글, 269면.
31) 전정미, 앞의 글, 2010c, 235-260면.
32) 같은 글, 241면.
33) 전정미, 앞의 글, 2010b.
34) 같은 글.

사과 표현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탈북민의 사과 표현에 대한 내용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에게 북한 화행이라는 것이 탈북민 화행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드러내며, 이러한 결과 기술을 통해 '직접성 대 간접성' 혹은 '공손하고 부드러운 남한' 대 '단순하고 직선적인 북한'의 구도가 형성된다.

이수연의 2012년 연구[35]는 탈북민의 요청 화행과 남한 토박이의 요청 화행을 비교 분석한 논문이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이 탈북민 화행만을 수집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탈북민 65명과 남한 토박이 90명의 화행을 함께 수집하여 대조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담화완성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제한된 선택지 중에서만 응답을 고를 수 있었던 앞선 연구들에 비하여 응답의 폭이 넓어진다는 이점을 가진다. 객관식 설문은 연구자가 미리 예상되는 화행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인 데 비해, 주관식으로 진행되는 담화완성형 설문은 연구자 전제의 개입 가능성이 줄어들며 보다 자연스러운 화행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설계는 역시 남북한 언어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새터민과 남한인이 겪을 수 있는 화행상의 갈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조 연구를 설계하였기 때문이다.[36]

결과 기술은 '주화행', '보조화행', '응답말 사용 양상', '요청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부담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주화행 사용 양상'과 '보조화행 사용 양상'에 있어서는 탈북민과 남한 토박이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는데, '주화행'에서는 탈북민이 직접적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조 화행'은 남한 토박이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응답말 사용 양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요청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부담도'의 경우 14개의 문항 중 8개의 문항에서 탈북민과 남한 주민이 차이를 보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35) 이수연, 「새터민과 남한인의 요청화행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2.
36) 같은 글, 3면.

이러한 결과 기술 방식은 '탈북민은 직설적이고 남한 토박이는 완곡하게 말한다'와 같은 이분법적 결과 제시를 벗어나, 화행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결과 기술이 담화 상황별로 각각 이루어짐으로써 "남한인이 언제나 새터민에 비해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며 새터민의 요청이 더 간접적인 상황도 존재하였다"와 같은 점도 지적될 수 있었다.[37] 이와 같은 결과 기술은 남한 토박이와 대립되는 특성을 강조하는 이분법적 연구 결과 기술에 비해 언어 사용 양상을 보다 다양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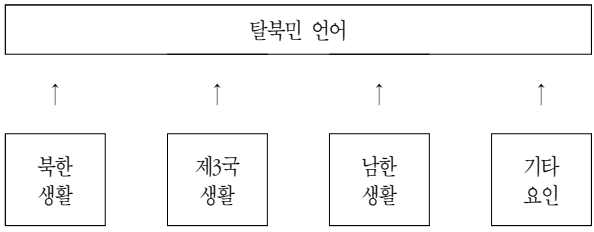
다만 이러한 방식의 결과 기술이 이 연구가 다른 선행 연구에 대해 갖는 차별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과 해석 단계로 이어져 충분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핸드폰을 빌리는 상황에서는 남한 토박이가, 보고서 지시 상황에서는 탈북민이 더 직접적 화법을 사용했다는 것과 같은 설문 결과들은 언급은 되었으나 전체적 맥락에서 충분히 논의되지는 못한 듯 보인다. 그래서 설문 결과를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보았을 때에 탈북민이 남한 토박이에 비해 직접적 화법을 선호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발화 상황이 가지는 공·사적 성향이 화행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결과 제시 부분에서는, 연구 설계 부분에서 이질성을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간 공통점을 삭제하지 않고 언급하고 있으며, 탈북민의 언어 특성을 북한과 관련시키거나 탈북민의 본질적 자질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주랑의 2016년 연구[38]는 탈북민의 요청 화행 수행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탈북민 10명의 자연 발화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탈북민은 소형 녹음기를 지참한 채로 연구자와 함께 일상적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연구자는 추후 녹음된 내용 전체를 전사하여 그중에서

37) 같은 글, 106면.
38) 이주랑, 「북한이탈주민의 요청화행 수행 양상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6.

‘요청 화행’을 추출해 내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앞선 연구 방법들에 비해 보다 자연스러운 발화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하는 탈북민이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으며, 자신의 목소리 녹음과 사용을 허용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연구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에 비해 표본의 수가 적었다는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은 탈북민 화행을 남한 토박이 화행의 대조 대상으로 상정하기보다는 그 자체의 특성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경향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연구는 설계 단계에서 ‘탈북민 언어’를 “북한 지역에서 태어나 북한어를 모어로 하며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남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연구 시점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남한 주민”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변이”로 정의하면서 연구를 시작한다.[39] 또한 탈북민 언어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받고 있”으며, 그렇기에 탈북민 언어에서 보이는 “특징을 모두 북한어의 것으로 섣불리 귀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40] 이러한 탈북민 언어 인식을 재구성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41]



〈그림 2〉 이주랑[39]의 탈북민 언어 인식

〈그림 2〉에서의 탈북민 언어는 북한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은 산물이다. 이러한 언어 인식은 앞서 살펴본

39) 같은 글, 4면.
40) 같은 글, 4면.
41) 같은 글.

〈그림 1〉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탈북민 언어는 남한 토박이 언어와 이분법적으로 대립하지 않으며 북한과 남한의 영향을 모두 받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 설계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보여 주었던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는 '화·청자 간의 친밀도', '요청 상황의 성격', '남한 거주 기간'에 따라 제시되었다. 탈북민은 친밀할수록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하고, 친밀도가 낮을수록 여러 가지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 공손성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요청의 성격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 요청인 경우 직접화행을 사용하였으며, 자신에게 이익이 될수록, 상대에게 손해가 될수록 공손 장치를 더 수반했다. 마지막으로 남한에 거주한 기간이 짧다고 해서 간접 화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특히 '의문형'으로 실현되는 간접 요청의 경우 정착 초기의 연구 참여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처럼 탈북민 화자가 간접화행과 공손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한다는 점은 탈북민이 직설적이라는 선행 연구의 흐름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결과 해석은 미리 제시된 세 가지 변인, 곧 친밀도, 요청 상황의 성격, 남한 체류 기간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연령, 성별, 출신 지역과 같은 변인들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특성 때문에' 등 연구자 임의의 해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점 또한 존재하는데,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인 이외의 요인에 대해서는 해석에서도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결과 기술 단계에 있어서도 탈북민 언어를 북한 언어로 환원하는 등의 기호 과정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은주의 2016년 연구[42]는 탈북민과 남한 토박이들의 거절 화행 수행 양상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의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탈북민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탈북민을 위한 언어 문화 교

42) 제은주,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거절화행 실현 양상 비교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6.

육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탈북민 화행에 접근하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탈북민 50명과 남한 토박이 50명을 대상으로 담화완성형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요청/초대, 사회적 지위, 친밀도, 공사 관계에 따른 총 24가지 거절 상황을 제시하여 거절 화행을 적도록 하였다. 이 연구 역시 탈북민의 언어 특성을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대조 연구를 설계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이질성을 전제하고 있는 듯 보인다. 다만 설문에서 남북한의 차이를 언급하도록 유도하거나, 화행 특성을 넌지시 제시하는 등의 문항이 없이 담화완성형 테스트를 통해 자연 발화에 가까운 화행을 수집하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기호 과정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 기술 단계에서는 고빈도 거절 전략, 하위 전략, 거절 상황에 따른 전략 변이 양상을 제시하였다. 이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기술함으로써 집단 간의 이질성에만 집중하지 않는 결과 제시가 이루어졌다. 거절 전략에 대한 결과 기술을 예로 들면, 탈북민은 '개인적인 이유 설명하기'나 '단정적 거절'을 고빈도 전략으로 선호하는 데 반해 남한 토박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차이도 지적하지만 두 집단 모두 '불가피한 이유 설명하기', '사과하기'를 최고빈도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결과 해석 부분에서는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이라는 기호 과정이 드러난다. 연구자는 "한국인이 에둘러 말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꺼리는 언어문화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여 탈북민 거절 화행의 특성을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43] 탈북민의 북한 내 출신지역, 계층 요인, 탈북 과정에서의 체류국가와 체류 기간, 남한 사회의 이주민이라는 요인 등은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만을 언급하며 이를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한다. 이는 탈북민이 보이는 언어 특성을 남북한의 차이라는 층위로 투사한다고 볼 수 있다.

---

43) 같은 글, 103면.

구현정의 2017년 연구[44]와 전정미의 2017년 연구[45], 양수경의 2017년 연구[46]는 남북한 화행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 보고서 '남북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와 극복 방안'[47]의 각 화행별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다. 구현정의 연구는 북한의 감사 화행을, 전정미의 연구(@)는 북한의 사과 화행을, 양수경의 연구는 북한의 거절 화행을 다루고 있다.

세 연구는 기존 탈북민 화행 연구, 탈북민과 남한 토박이들과의 소통 갈등 경험 등을 토대로 '남북한의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을 세우고 이를 남한 토박이들과 탈북민들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때의 탈북민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대신하여 북한 화행을 제보해 주는 사람들이다. 다른 연구들이 결과 해석 단계에서 탈북민 언어의 이질성을 남북한의 차이로 재생산했다면 세 연구는 연구 가설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미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이라는 기호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탈북민과 남한 토박이의 화법이 다른 것으로 보아 북한과 남한의 화법도 다를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탈북민과 남한 토박이와의 대립을 상위 층위로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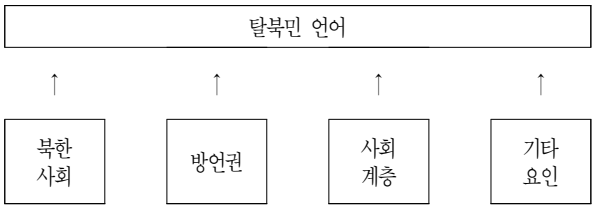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세 연구는 감사, 사과, 거절 화행에 대한 인식, 빈도, 표현 방식의 남북한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은 남한 토박이 74명, 탈북민 73명으로 총 147명이었으며, 연구 방법으로는 객관식 설문을 사용하였는데 다만 양수경의 연구는 여기에 담화완성설문의 조사가 추가되었다. 다른 연구들과 달리 북한 화행의 조사가 목적이었으므로 설문 시 탈북민에게 현재의 화행이 아닌 북한 거주 시의 화행을 물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연구자들이 탈북민의 현재 화행이 북한 화행과 달라졌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국에서의 경험, 남한 사회에서의 경험 등 탈북민 화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방

44) 구현정, 「남북한 감사 화행 비교 연구」, 『한말연구』 제43호, 한말연구학회, 2017, 5-28면.
45) 전정미, 「남북한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 제43호, 한말연구학회, 2017, 209-237면.
46) 양수경, 「남북한 거절 화행 비교 연구」, 『한말연구』 제43호, 한말연구학회, 2017, 147-172면.
47) 구현정 외, 『남북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극복 방안』, 통일준비위원회, 2016.

법 차원에서는 탈북민의 화행을 북한 화행으로 동일시하지 않아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이라는 기호 과정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제시 부분에서는 각 화행에 대한 인식, 대상, 빈도, 표현 방식 면에서 북한 거주 당시의 탈북민과 남한 토박이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수량화하여 비교함으로써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양수경의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거절은 북한 사람들의 경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거절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함으로써 결과 기술에 있어 차이에만 집중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결과 기술 시 세 연구 모두 탈북민이 보고한 화행을 '북한'이라는 사회의 전반적 화행 특성으로 일반화하여 '북한 사람'의 화행 혹은 '북한 응답자'의 화행이라고 기술한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응답자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단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언어에 영향을 미쳤을 북한 내 요인들은 〈그림 3〉과 같이 다양하게 지적될 수 있다.



〈그림 3〉 탈북민 언어에 영향을 미친 북한 내 요인

특히 세 연구의 탈북민 표본이 출신 지역(함경도 및 양강도 89%)과 학력(고등중학교 졸업 59.2%) 면에서 편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이 보이는 특성이 함경 방언권 또는 특정 사회계층의 화행 특성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탈북민의 언어가 '북한 사회'의 문화 규범, 언어 사용 규칙의 영향을 받았음은 분명하지만, 이들의 특성을 북한이라는 언어공동체의 전

반적인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48]

전체적으로 2017년의 세 연구는 연구 방법에서는 현재의 탈북민 화행이 북한 화행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일부 보여 주지만, 탈북민 화행을 통해 남북한의 차이를 가정한 가설 설정 단계에서 탈북민 화행과 북한 화행을 동일시하고 있으며(다른 층위로의 재생산) 결과 제시 방식에서도 북한 거주자의 탈북민 화행을 북한 전체의 화행으로 일반화하는 인식을 보여 준다.

4. 기호 과정을 통해 본 탈북민 언어 이데올로기

1) 기호 과정을 통한 언어 이데올로기 유추

3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탈북민 화행을 다룬 연구 10편 중 8편에서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났다. 또한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은 결과 기술 단계뿐만 아니라,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이미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언어 이데올로기 기호 과정의 출현 양상

기호 과정	해당 논문	출현 위치
도상화	해당 없음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	구현정[49], 전정미ⓐ[50], 양수경[51]	연구 설계
	전정미ⓐ[52], 전정미ⓑ[53], 전정미ⓒ[54]	연구 설계 결과 기술
	문금현[55], 제은주[56]	결과 기술
삭제	문금현[57]	결과 기술

48)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출신 지역과 학력 자체가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위 연구의 표본이 보이는 편중성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연구의 현실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수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편중된 표본의 연구 결과를 북한 전체의 특성으로 치환한다는 부분이다. 북한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 현 상태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49) 구현정, 앞의 글.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의 기호 과정은 탈북민 언어의 이질성을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이라는 상이한 층위로 재생산해 내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 선정, 설문 문항의 구성 등의 연구 방법뿐 아니라, 결과 제시와 결과 해석, 그리고 가설 설정에까지 폭넓게 작용하는 생산적인 기호 과정으로 본고의 검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삭제’의 기호 과정은 결과 제시에서 남한 토박이와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화행 특성을 보이는 탈북민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덜 부각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호 과정이 보여 주는, 즉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과 ‘삭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탈북민 언어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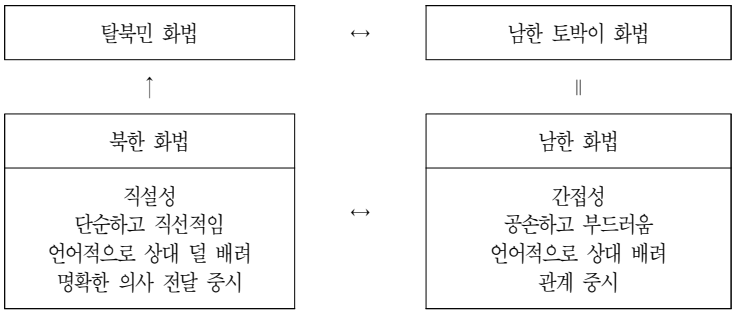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은 주로 결과 해석 시 탈북민 언어의 이질성을 설명하면서 남북한의 차이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언어에서는 남한 언어와는 대조적인 북한식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탈북민이 북한 사회의 문화적 규범, 언어 사용 규칙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여러 가지 요인 중 북한만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탈북 이후’의 삶과 경험은 요인에서 배제되고 탈북 이전의 경험, 즉 북한에서의 경험과 문화만이 주된 요인으로 부각된다. 그리고 북한의 언어와 문화는 남한과 대조적이기 때문에, 탈북민 화법 역시 남한 토박이 화법과는 대조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는 남한 대 북한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그리게 하여, 탈북민 언어를 남한 토박이와 대조적이고 대립적인 것으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양자의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즉 탈북민 언어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서의 북한을 부각시키면서 탈북민 집단의 이

50) 전정미, 앞의 글, 2017.
51) 양수경, 앞의 글.
52) 전정미, 앞의 글, 2010a.
53) 전정미, 앞의 글, 2010b.
54) 전정미, 앞의 글, 2010c.
55) 문금현, 앞의 글.
56) 제은주, 앞의 글.
57) 문금현, 앞의 글.

질성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삭제'의 기호 과정은 이질성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이나 이질성을 보이지 않는 화자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남한 토박이와 유사한 화행 양상을 보이는 특정 연령대의 탈북민이라든가, 남한 토박이와 유사한 화행 특성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탈북민 화행의 '이질성'을 부각시킨다.

이렇듯 선행 연구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은 결과적으로 탈북민 화법을 남한 토박이의 화법과 분명히 다른 어떤 것으로 표상하게끔 한다. 즉 탈북민 화법의 이질성이라는 믿음, 전제, 신념 체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과 '삭제'라는 기호 과정이 탈북민 화행에 관한 '이질성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고 보고, 이질성 이데올로기를 '탈북민들의 화용 특성이 남한 토박이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신념 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림 4〉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이질성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탈북민 화법 인식 구도를 보인 것이다.



〈그림 4〉 이질성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북민 화법의 이질성 구도

〈그림 4〉에서와 같이 이질성 이데올로기는 탈북민 화법이 남한 토박이 화법에 대해 갖는 이질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탈북민 화법과 남한 토박이 화법의 대립 구도를 생산한다. 이는 남북한 화법이라는 이질적인 층위의 대립 구도를

전제하고 있다. 간접적인 거절과 간접적인 요청을 선호하고 칭찬, 감사, 사과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등 언어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중시하는 남한 토박이들과 달리, 탈북민들은 직접적인 거절, 직접적인 요청을 선호하고, 단정적이고 단호한 거절 표현을 사용하며 칭찬, 감사, 사과 표현을 덜 사용하는 사람들로 그려진다. 탈북민 화법의 특성으로 빈번히 지적되는 것이 남한 토박이의 '간접성'과 대조적인 '직설성'이라는 점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언어 이데올로기가 연구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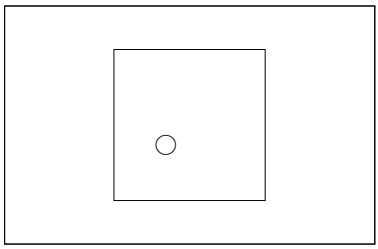
탈북민 언어에 대한 '이질성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탈북민 화법 연구에 나타나는 연구 방법의 특성, 용어 사용의 특성 등이 자연스럽게 설명 가능해진다. 첫째, 이질성 이데올로기는 그동안 탈북민 화법 연구들에서 '대조 연구'가 왜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는지 설명해 준다. 대조 연구 설계는 그 자체가 집단 간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 방법이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이질성 이데올로기가 탈북민 화행의 이질성이라는 전제에 부합하는 연구 방법을 선호하게끔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탈북민 화행 연구의 상당수가 탈북민의 언어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남한 토박이와의 대조 연구의 틀을 취하고 있다. 3장에서 분석한 10편의 논문 중 5편[58]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대조 연구틀은 화법 영역뿐만 아니라 탈북민 언어 연구 전반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시 기존의 이질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며 재생산해 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이질성 이데올로기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탈북민의 대조군을 '남한주민', '남한인', 심지어 '한국인'과 같이 불러왔던 기저의 인지 틀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남한에 거주 중인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용어 사용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이수연의 2012년 연구[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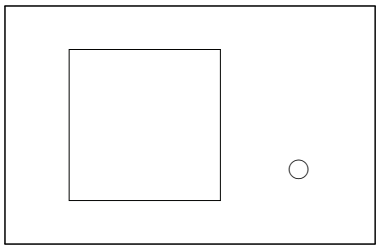
58) 이수연, 앞의 글; 제은주, 앞의 글; 구현정, 앞의 글; 전정미, 앞의 글, 2017; 양수경, 앞의 글.
59) 이수연, 앞의 글.

에서는 “새터민”의 대조군을 “남한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제은주의 2016년 연구[60]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대조군을 “한국인”이라고 칭하였다.

하지만 탈북민은 그 자신이 한국인이자 남한 주민의 지위를 획득한 상태이다. 이를 고려하면 남한 언어 공동체에서 탈북민과 남한 토박이는 〈그림 5〉와 같은 구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조군 명칭은 〈그림 5〉와 같은 구도가 아닌 〈그림 6〉과 같은 구도를 전제한다. ‘탈북민의 화행’을 ‘남한 주민 또는 한국인의 화행’이 아닌 것이자 그것과 대조적인 어떤 것으로 상정하는 셈이다.



〈그림 5〉 탈북민(○)과 한국인(□)



〈그림 6〉 탈북민(○)과 한국인(□)

〈그림 5〉와 〈그림 6〉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그림 6〉과 같은 프레임은 남한 내부의 언어 지형을 그리기에 부적절하며, 탈북민을 외집단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림 6〉과 같은 구도를 담지하는 용어들이 사용되어 온 것은 비단 이수연의 연구나 제은주의 연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성이다. 이와 같은 용어 사용은 탈북민을 남한 주민 또는 한국인에게서 배제된 별도의 집단으로 상정함으로써 탈북민과 남한 토박이의 이분법 구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역시 기저의 이질성 이데올로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61]

---

60) 제은주, 앞의 글.

61) 물론 ‘탈북민’의 대조군 명칭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가 합의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언어학 분야의 연구인 김주성,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4에서는 탈북민의 대조군을 ‘남한 출신 한국인’이라고 표시한 바 있다. 또한 이주랑, 앞의 글, 2016; 「북한이탈주민 언어 연구의 현황」, 국어교육학회 제3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2016

3) 언어 이데올로기의 새 기호 과정

한편, 본고의 분석 과정에서 어빈과 갈(Irvine and Gal)[62]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기호 과정을 상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게 되었다. 탈북민의 화행 특성이 복수 지표(multiple index)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특별히 한 가지의 지표로만 해석되는 기호 과정이 반복적으로 출현하였던 것이다.

사회언어학에서 특정 언어 자질은 그 언어 사용자가 속한 사회집단을 가리키는 지표(index)가 된다고 본다. 민족, 지역, 사회계층, 성별, 연령 등 특정 사회집단의 말씨(accent)나 방언적 요소가 그 사용자들과 빈번히 공기함으로써 둘 간에 지표적 기호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살핀 다수 연구에서는 탈북민의 화행 특성을 북한의 언어 문화적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북한 화법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탈북민의 화행 특성은 '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지표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 7〉과 같다.

탈북민 화행 특성	⇒	북한 사람
탈북민 화행 특성	⇏	함경 방언 화자
탈북민 화행 특성	⇏	낮은 사회 계층
탈북민 화행 특성	⇏	이주민

〈그림 7〉 탈북민 화행 특성의 선택적 지표화

〈그림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탈북민 화행 특성은 '방언', '계층', '이주

년 6월 23일에서도 탈북민의 대조군을 '남한 토박이'라고 칭하고 있고, 이를 받아들여 양수경, 「남북한 화행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이탈주민의 화행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어 연구의 새로운 흐름』, 박이정, 2018, 387-426면에서도 '남한 토박이'를 사용하였다. 이렇듯 대안적인 표현을 고민한 연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탈북민의 대조군을 '남한 주민', '남한인' 등으로 표시해온 관행에 대해서는 보다 반성적이고 적극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62) Irvine, Judith T. and Gal, Susan, Op. cit., pp.36-39.

민'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기능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이런 연결 가능성은 차단당하고 있었다. 그 결과 탈북민 언어 특성은 여러 사회집단의 복수 지표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로지 '북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지표화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여러 가능한 지표 관계 중 특정한 하나만 선택하여 부각시키는 현상을 '선택적 지표화'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 살펴본 연구 중에서 탈북민의 소통 특성을 남북한 차이와 주로 연관시킨 연구들[63]과 탈북민의 북한 거주 시 화행을 특정 방언이나 계층의 화행이 아니라 북한의 화행으로 일반화한 연구들[64]은 모두 이 선택적 지표화의 기호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택적 지표화'는 남한 토박이와의 이분법 구도 형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연구의 결과 나타난 언어적 특성이 '북한'이라는 하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만 기능하게 되면서 '남한 대 북한'의 이분법 구도가 더욱 견고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택적 지표화'가 언어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고는 '선택적 지표화' 역시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이에 '선택적 지표화'를 새 기호 과정으로 포함하여 검토 문헌에서의 언어 이데올로기 기호 과정 출현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선택적 지표화'가 추가된 언어 이데올로기 기호 과정의 출현 양상

기호 과정	해당 논문	출현 위치
도상화	해당 없음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	구현정[65], 전정미ⓐ[66], 양수경[67]	연구 설계
	전정미ⓐ[68], 전정미ⓑ[69], 전정미ⓒ[70]	연구 설계 결과 기술
	문금현[71], 제은주[72]	결과 기술

63) 문금현, 앞의 글; 전정미, 앞의 글, 2010a; 앞의 글, 2010b; 앞의 글, 2010c; 제은주, 앞의 글; 구현정, 앞의 글; 전정미, 앞의 글, 2017; 양수경, 앞의 글.
64) 구현정, 앞의 글; 전정미, 앞의 글, 2017; 양수경, 앞의 글.

삭제	문금현[73]	결과 기술
선택적 지표화	구현정[74], 전정미ⓐ[75], 양수경[76]	연구 설계 결과 기술
	전정미ⓐ[77], 전정미ⓑ[78], 전정미ⓒ[79]	연구 설계 결과 기술
	문금현[80], 제은주[81]	결과 기술

〈표 3〉을 통해 다시 한 번 언어 이데올로기의 여러 기호 과정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호 과정이 나타내는 것은 결국 탈북민의 화법이 곧 북한의 화법이며, 그것은 마치 남북한 언어가 대조적인 것과 같이 남한 토박이 언어와는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언어 인식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적 지표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만약 탈북민의 언어 특성이 '방언'으로 지표화가 이루어진다면, 탈북민 언어가 남한 토박이 전체의 언어와 대립되는 것으로 표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남한 토박이 화자들도 다양한 방언 화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층'으로 지표화가 된다면 남한 토박이 중 비슷한 계층의 화자와의 '동질성'을 찾아낼 여지가 있다. '이주민'으로 지표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형태의 이주민 집단 화자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65) 구현정, 앞의 글.
66) 전정미, 앞의 글, 2017.
67) 양수경, 앞의 글.
68) 전정미, 앞의 글, 2010a.
69) 전정미, 앞의 글, 2010b.
70) 전정미, 앞의 글, 2010c.
71) 문금현, 앞의 글.
72) 제은주, 앞의 글.
73) 문금현, 앞의 글.
74) 구현정, 앞의 글.
75) 전정미, 앞의 글, 2017.
76) 양수경, 앞의 글.
77) 전정미, 앞의 글, 2010a.
78) 전정미, 앞의 글, 2010b.
79) 전정미, 앞의 글, 2010c.
80) 문금현, 앞의 글.
81) 제은주, 앞의 글.

이며, 이분법이 아니라 다중 비교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다양한 시도는 결국 탈북민 언어를 곧 북한의 것으로 투사하지 않는 일, 곧 기존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인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5. 결론

언어 이데올로기는 연구자의 연구 설계와 언어 상황에 대한 해석에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또한, 앞서 이루어진 연구는 반복적으로 인용되면서 지속적으로 학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축적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사회언어학적 지형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82] 본고는 지금까지의 탈북민 화법 연구가 특정 언어 이데올로기에 지배받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학계에 언어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언어 이데올로기이고 기존 연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탈북민 화법을 다룬 논문 총 10편을 언어 이데올로기의 기호 과정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8편의 연구에서 하나 이상의 기호 과정이 나타났다. '삭제'는 결과 기술 단계에서 남한 토박이와의 유사성을 보이는 탈북민들의 존재라든가 남한 토박이와 동일한 화행 특성의 존재에 대해 무시하거나 주의를 덜 기울이도록 하여 탈북민 화행의 '이질성'이 강조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층위로의 재생산'은 연구 설계 단계와 결과 기술 단계 모두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실상 연구 전반에 있어 힘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탈북민 언어의 이질성을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이라는 상이한 층위로 재생산해 내면서 역시 탈북민과 남한 토박이 화법의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호 과정들을 근거로 탈북민 화행에 관한 '이질성 이데올로기'가 존재했다고 보고, 그것을 '탈북민들의 화용 특성이 남한 토박이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신념 체계'로 정의하였다. 이질성 이데올로기는 '직설적 대 간접적'으로 대표되는 탈북민과 남한 토박이 화법 대립 구도

82) Irvine, Judith T. and Gal, Susan, Op. cit., p.36.

를 형성하며, 이를 상위 층위인 남북한 화법의 이질성 구도로 재생산해낸다. 이러한 이질성 이데올로기의 존재는 탈북민 화행 연구에서 왜 집단 간 '차이'에 주목하는 대조 연구의 비중이 높은지, 또 탈북민을 남한 주민, 한국인에서 배제된 별도의 집단으로 상정하는 용어 사용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탈북민 화법 연구 지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았는지, 기존 연구의 방법과 결과를 답습해오지 않았는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서, 언어 이데올로기라는 개념과 기호 과정 분석을 통해 학계에 존재하는 '이질성 이데올로기'라는 기저의 인식 틀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여러 가능한 지표 관계 중 '북한'이라는 지표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기제가 탈북민 언어 이데올로기를 생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바 이를 '선택적 지표화'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기호 과정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경향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탈북민의 언어에 영향을 미친 '북한' 이외의 요인이 간과된다는 것이다. 탈북민은 먼 과거에 북한에서 살았고, 보다 가까운 과거에 외국에서 살았으며(혹은 살기도 했으며), 현재는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의 언어를 북한의 것으로만 환원하는 것은, 언어에 영향을 미친 과거의 원인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다 현재적인 원인들은 지나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는 것을 단일 지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의 사회 계층, 받은 교육의 정도, 살았던 지역, 살았던 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이 북한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여, 탈북민 언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쉽게 가려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탈북민 화법 연구에서는 탈북민 언어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남한 토박이를 비교군으로 삼은 '대조 연구'가 주된 연구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탈북민 화법 연구 영역에서는 이질성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언어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 설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질성을 전제로 한 탈북민 연구가 재생산되고 있다. 무의식적인 신념 체계인 이질성의 이데올로기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산물인 연구 결과가 다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온 것이다. 본고를 통해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존재가 가시화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가 언어 이데올로기와 언어 연구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보다 비판적 관점에서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윤희, 「주변화에 따른 전통구술장르의 변화와 언어이데올로기: 인도네시아 쁘딸랑안 부족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제32호 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2004, 23-48면.

구현정, 「남북한 감사 화행 비교 연구」, 『한말연구』 제43호, 한말연구학회, 2017, 5-28면.

구현정 외, 『남북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극복 방안』, 통일준비위원회, 2016.

김주성,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4.

문금현, 「국어교육: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제7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141-172면.

문금현・이홍식・김경령,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2006.

양수경, 「남북한 거절 화행 비교 연구」, 『한말연구』 제43호, 한말연구학회, 2017, 147-172면.

_____, 「남북한 화행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이탈주민의 화행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어 연구의 새로운 흐름』, 박이정, 2018, 387-426면.

양수경・이주랑, 『탈북민 언어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인식 비교 연구』, 천재교육, 2018.

이수연, 「새터민과 남한인의 요청화행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2.

이주랑, 「북한이탈주민의 요청화행 수행 양상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6.

_____, 「북한이탈주민 언어 연구의 현황」, 국어교육학회 제3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2016년 6월 23일, 187-197면.

전정미, 「새터민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화행 교육 방안 연구: 거절하는 말하기를 중심으로」, 『우리말 글』 제49호, 우리말글학회, 2010a, 111-138면.

_____, 「북한이탈주민의 화행 사용 양상 연구—칭찬 화행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제27호, 한말연구학회, 2010b, 245-272면.

_____, 「북한이탈주민의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조사」, 『겨레어문학』 제45호, 겨레어문학회, 2010c, 235-260면.

_____, 「남북한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 제43호, 한말연구학회, 2017, 209-237면.

제은주,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거절화행 실현 양상 비교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Irvine, Judith T., "When talk isn't cheap: Language and political economy", *American ethnologist*, Vol.XVI, No.2, 1989, pp.248-267.

Irvine, Judith T. and Gal, Susan, "Language ideology and linguistic differentiation", Paul V. Kroskrity (Eds.), *Regimes of language: Ideologies, polities, and identities*, Santa Fe, NM: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2000, pp.35-83.

Silverstein, Michael, "Language structure and linguistic ideology", R. Clyne, W. Hanks and C. Hofbauer (Eds.), *The elements: A parasession on linguistic units and levels*,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9, pp.193-247.

Irvine, Judith T., "Language Ideology", Oxford Bibliographies Online, http://www.oxfordbibliographies.com/view/document/obo-9780199766567/obo-9780199766567-0012.xml(2018.12.31 검색).

【Abstract】

Analysis of the language Ideology featured in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speech of North Korean Defectors

Yang, Soo-Kyung* and Lee, Ju-Rang**

This article has two basic objectives: First, to examine whether existing research on the speech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language ideology: Secon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language ideology that influenced and shaped the previous research. By using theoretical framework developed by Irvine and Gal, we found that 80% of existing research featured semiotic process of language ideology, focusing on the heterogeneous traits between the speech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native South Koreans. That is, the previous studies on the speech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shaped by the ideology of heterogeneity, which we defined as the sets of beliefs that the speech of native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are distinctively different. We argue that these sets of belief reinforces not on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peeches, but also the difference of the two countries, further reproducing the structure of conflict.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s the better understanding of how previous studies are shaped based on this conceptual framework, and why they share the use of terminology and methodology in common.

Keywords: Language Ideology,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Refugees, Speech Act, Speech, Language Perception.

접수일: 2018.12.31. || 심사일: 2019.01.09. || 게재확정일: 2019.02.01.

* Lecturer, Departmen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First autho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wha Womans University (Co-author).